

## 기억의 층위

화면은 모노톤의 전면화이거나 때로 두 면으로 구성되어진다. 대단히 단조로우면서도 풍부한 암시로 덮여 있다. 조용하면서도 무언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기운으로 화면은 더없이 푸근한 느낌을 준다. 이미지들은 가로지르는 선조(線條) 속에 명멸한다. 일정한 선조는 잘 구획된 초여름날 못자리처럼 가지런하다. 거기 촘촘히 심어진 모들이 다가올 여름날을, 그리고 잘 익은 벼들로 빼곡히 채워지는 가을을 기다린다. 벼들 사이로 참새가 날아들기도 하고 벼들 사이로 지나는 바람처럼 휘말리는 선의 회오리가 점점이 묻어나기도 한다. 그것은 물론 단순한 못자리가 아닐 것이다. 들꽃이, 창문틀이, 자동차가 숨바꼭질 하듯 떠오르기도 하니 말이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어떤 목적하에 그려진 것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려져야 하는 필연성이나 이미지 사이의 어떤 맥락도 쉽게 간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아련한 그리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지워진 이미지나 가까스로 그려진 이미지들은 곧 없어질 것만 같은 안쓰러움과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범속한 사물의 현전은 그러나 무언가 소중하고 오래 간직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작은 꽃송이 하나, 그리다 만 것 같은 새 한 마리,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부단히 자맥질 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난다.

오세열의 화면은 이처럼 무심하고 때로는 지나쳐버린 기억의 갈피들을 우리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인다.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추억의 보따리로서.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사이를 부유하는 이 기억의 갈피들은 고충환의 말처럼 “삶을 의미있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이 연금술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기억은 세월의 겨가 만드는 일정한 층위(層位)이다. 저 깊은 바닥에서 길어올리는 샘물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깊이이다.

오세열의 화면은 모노톤에 지배된다. 그런 만큼 평면화가 두드러진다.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나 흔적들은 이 평면의 질서에 상응하면서 가까스로 자신을 가늠다. 평면화가 두드러지면서도 단순한 평면으로 보기엔 중후한 마티에르의 층위가 평면의 구조화로 진행된다. 평면이 단순한 넓이의 표면이 아니라 깊이로서의 구조를 아울러 띤다. 이 점은 일반적인 모노톤의 평면과는 다른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경향으로서 등장한 한국의 단색화와 일정한 차별화를 띠는 것도 이 점에서 기인한다.

천으로 이루어진 캔버스보다 딱딱한 나무판이 지지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의 화면의 특징이다. 마치 아이들이 길바닥이나 벽에다 낙서를 하듯 그도 딱딱한 화판 위에도 긁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리다 그만두기도 한다. 얼마쯤 그의 화면은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어쩌면 끝나지 않은 순간이야말로 그의 화면이 보여주는 여운이다. 적지 않은 화면이 칠판을 연상시킨다, 딱딱한 칠판 위에 글자를 쓰고 숫자를 쓰고는 채 지우지 않은 상태로 교사가 교실을 떠날 때 아이들이 몰려서 칠판에다 제각기 교사의

흥내를 내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선생님이나 된 것처럼 뽐내던 그 잔잔한 긴장이 아련한 물결로 다가온다.

판 위에 쓴 글이나 그림은 그 자체로 독립된 기호이기보다 파편화된 이미지의 출현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을 지닌 서술로 기술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태어나고 소멸되는 기억의 자적(自適)일 뿐이다. 그러기에 무목적한 반복을 이루기도 한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나란히 반복되는 것도 그 하나이다. 그것은 기호로서 숫자이기보다 암송되어야 하는 훈련의 흔적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화면이 보여주는 포화된 마티에르의 정감은 반유채화(反油彩畵)의 한 단면을 이루면서 한국의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에 닿아있다. 유화가 지닌 질감의 기름기가 걸러지고 마치 퇴락한 옛 기물을 대하는 것 같은 푸근함으로써 말이다. 한국의 일부 화가들의 화면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공통된 특성은 유화라는 서양의 방법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서로 걸러낸 독특한 방법의 고안이다. 동아시아로 들어온 서양의 회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른 수용과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유채적 정감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기법이다. 이 같은 기법은 화면에서 추구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공통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닌 경우이거나 순수한 추상의 화면이거나 상관없이 말이다. 따라서 오세열의 화면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대표적인 화가로서 박수근의 화면에 보이는 반유채적 정감과도 상통되는가 하면 일련의 단색화 작가들의 무채(無彩)에 가까운 반유채적 질감과도 상통되는 점을 보인다. 이 점에서야말로 그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의 조형화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구상이나 추상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그 고유함을 지닌 작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오세열의 작품이 지닌 고유한 특성은 모노크롬에 가까운 색채의 절제와 때로 기호의 나열에서 보여주는 반복성, 그리고 반유채적 정감으로 꼽을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요소는 그의 작품에 접근해가는 이해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한국 고유의 정서의 조형화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는 어느 유형에도 갇혀있지 않지만, 한국이란 정신의 집단적 세계에 속해있기를 영원해 마지 않는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모노크롬의 단면을 배경으로 수줍은 듯 서있는 아이의 모습은 어쩐지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 자신의 존재를 소리쳐 알리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기념비적 위상으로 현전(現前)시킨다. 조용하나마 당당하게. 오세열의 세계가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

오광수(미술평론가)